

## 「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 연구\*

김 병 권\*\*

### 목차

- |                    |                  |
|--------------------|------------------|
| I. 서론              | IV. 極樂往生의 불교적 담론 |
| II. 인과론적 生死輪迴      | V. 결론            |
| III. 極樂往生을 향한 염불수행 |                  |

### 論文 抄錄

삼국시대에 佛敎가 전래된 이후 그 가르침은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불교의 전국적 전파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불교 說話를 『三國遺事』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郁面婢念佛西昇」, 「廣德 嚴莊」, 「南白月二聖 努昝夫得 怛怛朴朴」 등은 衆生의 極樂往生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불교의 民衆敎化와 중생의 死後에 대한 期待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은 불교의 彌陀信仰을 반영하여 형성되었던 「郁面婢念佛西昇」이며, 鄉傳과 僧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전은 修行을 돕는 일을 하던 사람[知事者]이 戒를 받지 못해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로 환생하고, 소는 등에 실어 나르던 佛經의 힘을 입어 다시 인간세계에 여자 종으로 태어나며, 이 여자의 이름이 郁面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향전은 郁面이 주인의 천대와 멀시를 견디며 자기 신분의 한계와 몸의 고통을 잊고 염불하여 마침내 極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논문투고일: 2019.10.31 / 심사개시일: 2019.11.15 / 게재확정일: 2019.12.17

樂往生하였음을 전하는 이야기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론적인 생사윤회와 彌陀信仰의 極樂往生에 대한 불교문화적 담론을 살펴보았다. 郁面의 생사윤회와 極樂往生談은 신비체험을 통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假說 方便이다. 한편 불교 수행을 통하여 멸시와 천대를 건디는 忍辱과 몸을 잊어버린 無我를 통해 自性의 청정함을 깨달아 진정한 自由와 영원한 幸福을 이룬다는 가르침은 불교 교리의 實談이다.

현실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와 나 사이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순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천대와 멸시를 견디며 몸을 잊어야 한다. 또한 나와 너, 있음과 없음, 옳음과 그름의 분별로 인한 집착과 相을 초월하여야 한다. 「郁面婢念佛西昇」의 불교문화적 담론은 무절제한 소유욕과 분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오늘날의 현실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주제어 : 郁面, 三國遺事, 彌陀信仰, 忍辱, 無我, 念佛, 極樂往生, 衆生教化

## I. 서론

이 연구의 대상은 『三國遺事』 「感通」편에 수록된 「郁面婢念佛西昇」이다.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에 미천한 신분의 여자 종인 郁面이 귀족 신분인 阿干 貴珍을 따라 彌陀寺에 가서 염불한 결과 현신 成佛하여 서방의 極樂世界로 往生하였다는 내용의 佛教 說話이다. 이 설화는 인물의 신분이나 성별에 착안하면 사회적인 연구의 대상일 수 있다. 염불수행과 極樂往生이라는 내용에 착안한다면 불교사상 연구의 대상일 수 있다. 그리고 설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사회적 연구, 불교적 연구, 그리고 문학적 연구로 일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은

국난극복을 위한 사회참여 독려,<sup>1)</sup> 여성의 깨달음을 위한 정진 촉구,<sup>2)</sup> 남성 중심의 당대 시각 반영<sup>3)</sup> 등의 의미를 추출해 보였다.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들은 이 작품을 신라 당대의 彌陀信仰을 반영한 여인왕생을 통해 하층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작품,<sup>4)</sup> 하층민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sup>5)</sup> 하층민도 삶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작품<sup>6)</sup>이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회귀적 시각으로 초극의 고통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보거나,<sup>7)</sup> 설화모형의 변이 유형과 심층구조의 의미체계,<sup>8)</sup> 서사적 중층성에 주목하기도 하였으며,<sup>9)</sup> 현신 成佛의 유형,<sup>10)</sup> 聖과 俗의 통합 양상<sup>11)</sup> 등을 이 작품이 가진 서사구조의 특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신라시대의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불교설화의 작품세계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極樂往生의 불교문화적 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는 이르지

- 
- 1) 구자상, 「삼국유사 소재 여성주체설화의 수록배경논구」, 『동아시아불교문화』(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31집, pp.331-360.
  - 2) 김영미, 「고려말 여신 성불론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한국사상사학회, 2012) 제41집, pp.165-200.
  - 3) 신은경, 「삼국유사 소재 육면비염불서승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여성문학연구』(한국여성문학회, 2012) 제27호, pp.7-32.
  - 4) 이현주,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017) 제106집, pp.85-118.
  - 5) 박다원, 「삼국유사 구도설화에 나타난 하층민의 구도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택민국학연구원, 2018) 제21집, pp.139-163.
  - 6) 박서연,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신라중대를 중심으로-」, 『불교학보』(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 제68집, pp.135-158.
  - 7) 김승호, 「삼국유사에 보이는 시간관과 과거구성」, 『동아시아고대학』(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제29집, pp.37-62.
  - 8) 송효섭, 『삼국유사설화와 기호학』, 일조각, 1990.
  - 9) 정환국, 「삼국유사의 인용 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초기서사의 구축형태에 주목하여」,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2009) 제23집, pp.121-148.
  - 10) 김기중, 「한국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동악어문학』(동악어문학회, 2016) 67집, pp.275-309.
  - 11) 이강엽, 「성과 속의 경계, 삼국유사의 신발 한 짝」, 『고전문학연구』(한국고전문학회, 2013) 제43집, pp.103-130.

못한 듯하다.

불교에서 염불은 가장 초보적 불교적인 수행이며, 염불의 내용은 부처의 相好를 생각하여 觀하거나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망념과 번뇌를 버리고 涅槃에 들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淨土三部經의 하나인 『阿彌陀經』은 “極樂世界는 여기에서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있으며, 阿彌陀佛이 설법하고 있는 세계이며, 이 세계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으므로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sup>12)</sup> 라고 설하고 있다.

불교 설화인 「郁面婢念佛西昇」은 이러한 불교의 彌陀信仰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중생들에게 구전된 작품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작품 속 郁面의 念佛修行과 極樂往生의 의미를 假說과 實談으로 구분하여 밝히고, 이를 통해 郁面의 極樂往生 이야기가 갖는 불교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여기서 假說은 불교의 가르침을 민도록 하기 위한 方便이고, 實談은 불교 가르침의 진실한 뜻이다. 다시 말하면 方便은 ‘손가락’이고 實談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이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주요 인물인 郁面은 어떠한 성격의 인물인가, 둘째, 염불수행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極樂往生의 實談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의문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II. 인과론적 生死輪迴

一然이 『三國遺事』에 수록한 「郁面婢念佛西昇」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鄉傳이고 다른 하나는 僧傳이다. 향전은 郁面의 수행과 그 결과인 成佛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승전에서는 郁面의 전생을 포함하여 수행한 成佛

12) 청화 역, 『阿彌陀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337 참조.

과 이에 연기한 사찰 건립을 전하고 있다. 먼저 郁面의 성격을 불교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승전에서 서술한 郁面의 생사윤회 과정을 인과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棟梁 八珍은 觀音菩薩의 現身이었다. 무리들을 모으니 일천 명이나 되어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노력을 다했고, 한 패는 道를 닦았다. 그 노력하는 무리들 중에 일을 맡아보던 이[知事者]가 戒를 얻지 못해서 畜生道에 떨어져서 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佛經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힘을 입어 阿干貴珍의 집 계집종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郁面이라고 했다. 郁面은 일이 있어 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드디어 佛道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sup>13)</sup>

觀音菩薩의 현신인 八珍이 모은 일천 명 가운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속한 知事者는 戒를 받지 못했다. 불교의 계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다섯 계율을 五戒라고 한다. 수행자의 五戒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不殺生],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으며[不偷盜], 샷된 음행을 하지 않으며[不邪淫],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不妄語], 취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不飲酒]”<sup>14)</sup> 것이다. 지사자가 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오계를 지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지사자는 계를 받지 못한 결과 畜生道에 떨어졌다. 불교에서는 축생지옥에 대해 “성질이 어리석어서 탐욕과 음욕만을 가지고 부모나 형제의 구별도 없이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세계로 서로 다른 동물을 자기 생존의 먹이로 하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세계”<sup>15)</sup>라 설명한다. 지사자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축생도에 떨어진 이유는 불교의 인과업보에 따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三毒에 머물렀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유로 業의 사슬을 스스로 만들어 받은 과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3)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361.  
 14) 일아 편역, 「상윳따 니까야」 55,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민족사, 2018), p.297.  
 15) 조계종포교원, 『불교의 이해와 신행』(조계종출판사, 2004), p.256.

축생에 떨어진 지사자는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부석사의 소가 되어 태어난 일은 그가 불교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사자의 환생인 소는 佛經을 등에 실어 날랐다. 佛經을 등에 실은 일은 佛經을 몸에 지녔다는 뜻이다. 佛經을 나르는 일은 사람이 佛經을 읽도록 하기 위한 보시 행위이다. 『金剛經』에서는 “보살이 경전 또는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를 보시한 일보다 그 복이 수승하다. 왜냐하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6)</sup> 라고 한다. 따라서 경전을 등에 실어 날랐던 일은 칠보를 보시한 일보다 더 수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부석사의 소는 佛經을 등에 실어 나른 복을 지은 결과, 비록 여자 종의 신분이지만 축생도에서 벗어나 인간계에 환생하였다. 축생도에서 인간세계로 공간을 이동하고 소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일은 佛經의 힘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부수어버리고 죄업의 사슬을 끊은 결과’이다.<sup>17)</sup> 이렇게 계를 받지 못한 지사자가 인간세계에서 축생도로, 축생도에서 다시 인간세계로 윤회한 인물이 郁面이다. 이 郁面이 향전으로 전해오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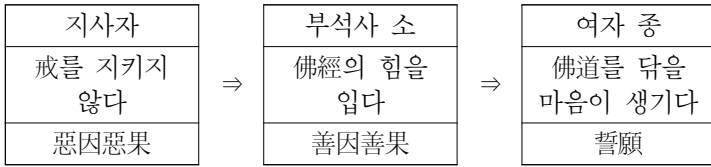
郁面이 꿈에 감응해서 드디어 佛道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여기서 꿈에 감응했다는 말은 佛經의 힘을 입었다는 말이며, ‘드디어’라는 표현은 지사자일 때에 계를 지키지 못해서 만들었던 죄업을 佛經의 힘으로 참회하고 끊었음을 강조한다. 즉 인과응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가르침의 표현이다. 그리고 佛道를 닦겠다는 마음은 誓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은 네 가지이며, 이를 四弘誓願이라고 한다. 사홍서원의 내용은 “무량한 衆生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煩惱를 다 끊기를

16) 『金剛經』 第八 「依法出生分」 참조.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 即非福德性 是故如來 說福德多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17) 일아 편역, 「양곳따라 니까야」 10부 174,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민족사, 2018), p.295 참조.

서원합니다. 무량한 法門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佛道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sup>18)</sup> 네 가지이다.

지금까지 승전을 통해서 살펴본 郁面의 생사윤회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후 郁面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구체적 수행을 향전에서 살펴볼 것이다.



### Ⅲ. 極樂往生을 향한 염불수행

#### 1. 淸淨한 信心의 發願

郁面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서원을 이루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 염불을 선택하였다. 郁面은 極樂往生하기 위해 염불수행을 어떻게 하였는가? 염불수행자들에게 있어 ‘정도에 往生하기 위해 쉽 없는 염불정진과 발보리심, 그리고 지계가 중시<sup>19)</sup>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郁面의 염불수행은 승전과 향전에서 모두 서술되어 있다.

① 阿干의 집은 惠宿法師가 세운 彌陀寺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阿干이 항상 그 절에 가서 염불하였는데 郁面도 따라가서는 뜰에서 염불했다고 한다.

② 景德王 때 康州[지금의 진주]의 남자 信者 수십 명이 뜻을 西方에 구해서 州의 경계에 彌陀寺를 세우고 萬日을 기약하여 契를 만들었다. 이때 阿干

18) 성철, 『돈황본 육조단경』(장경각, 2015), pp.106.

19) 박서연,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신라중대를 중심으로-」, 『불교학보』(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 제68집, p.153.

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郁面이라고 하였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念佛하였다.<sup>20)</sup>

①은 승전에 전하는 내용이며, ②는 향전에 전하는 내용이다. 승전과 향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彌陀寺를 세운 주체가 승전에서는 혜숙법사이고 향전에서는 남자 신자들이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彌陀信仰을 믿는 점은 두 내용이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향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설화의 공간적 배경은 지금의 진주이며 남자 신도들이 세운 彌陀寺이다. 彌陀寺는 이름이 함축하는 대로 阿彌陀佛을 主佛로 모시는 彌陀信仰의 절이다. 미타신앙은 阿彌陀佛이 설법하고 있는 영원한 광명의 세계인 서방의 극락에 往生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郁面이 뜻을 西方에 구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極樂往生을 믿었음을 알게 한다.

郁面이 염불하러 갔던 彌陀寺는 신도들의 布施로 건립된 절이다. 彌陀寺 건립의 경비를 시주한 布施는 六波羅蜜의 첫 번째이다. 六波羅蜜은 보살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이며, 그 내용은 布施波羅蜜, 持戒波羅蜜, 忍辱波羅蜜, 精進波羅蜜, 禪定波羅蜜, 智慧波羅蜜<sup>21)</sup>이다. 이 중에 布施波羅蜜은 보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를 가진다.

釋迦牟尼 世尊[이하에서는 석가모니를 생략하고 世尊이라고 표기함]은 『金剛經』에서 보시하는 마음과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보살은 모든 법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이른바 물질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일체 작용에도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안주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안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가히

20)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360.

21)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광복, 2007), pp.80-81 참조.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너의 생각이 어떠하나?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서북 동북 동남의 네 간방과 위와 아래에 있는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안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sup>22)</sup>

누구든 보시를 행할 때에는 法에 안주하지 말고, 물질에 안주하지 말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일체 작용에도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法은 ‘모든 존재와 그 존재의 법칙인 一切法을 말하며, 眼·耳·鼻·舌·身·意를 통해 인식되는 色·聲·香·味·觸·法 모두<sup>23)</sup>이다. 그리고 보시하여 相에 안주하지 말라고 한다. 相은 ‘우리들의 소견이나 인식 또는 번뇌가 생각(想)의 상태를 지나 어떠한 고정된 형상처럼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 내부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sup>24)</sup>을 뜻한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다[無住]는 말은 어떤 무엇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에 안주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는 말은 보시할 때 어떠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되며 심지어 자신이 남에게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에 안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어떠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되며 심지어 자신이 남에게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보시이어야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허공과 같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도들은 彌陀寺를 건립하는 데 시주한 보시가 무량한 복을 받는 수행이라고 믿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2) 『金剛經』, 第四 妙行無住分. “須菩提 菩薩 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 應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也 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上下虛空 可思量不也 世尊 須菩提 菩薩 無住相布施 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23) 무비스님, 『금강경강의』(불광출판사, 2001), p.42.

24) 무비스님, 『금강경강의』(불광출판사, 2001), p.37.

한편 郁面은 주인인 아간 貴珍을 따라 彌陀寺에 가서 법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엮불하였다고 한다. 郁面은 왜 엮불을 하였을까? 世尊은 엮불에 대해 『阿彌陀經』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사리불아, 적은 선근이나 하찮은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極樂世界에 往生할 수 없느니라. 사리불아, 만약 착한 사람들이 阿彌陀佛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阿彌陀佛의 명호를 외우거나 부르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 阿彌陀佛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 그는 끝내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阿彌陀佛의 極樂世界에 往生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위없는 이익이 되는 도리를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極樂世界에 往生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sup>25)</sup>

중생이 阿彌陀佛의 명호를 굳게 지니고 외우거나 부르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수명이 다할 때에 阿彌陀佛의 極樂世界에 往生하게 된다. 그래서 중생들은 서원을 세워 極樂世界에 往生하기를 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郁面이 佛道를 닦으려는 마음은 一然이 “한 마디 엮불마다 부처가 되려 하여”<sup>26)</sup>라고 찬하였듯이,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법을 다 배우고 佛道를 다 이루겠다는 誓願이다. 그리고 이 서원이 阿彌陀佛의 極樂世界에 往生하기 위한 엮불수행의 발원으로 이어진다.

## 2. 忍辱과 無我的 功德

郁面은 엮불하면서 무엇을 깨달아 얻었는가? 郁面이 彌陀寺를 건립하는 데 시주한 신도들처럼 엮불했다. 그러나 郁面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

25) 청화 역, 『阿彌陀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342.

26)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362.

에 염불하는 환경이 그들과 달랐다. 귀족 신분의 貴珍은 법당 안에서 염불했지만 종의 신분인 郁面은 마당에서 염불하였다. 貴珍은 郁面이 마당에서 염불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주인은 그녀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짓을 미워하여 매양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룻밤 동안에 다 쥘게 하니,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쥘어 놓고 절에 가서 염불하여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기다란 말뚝을 세워 두 손바닥을 꿰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合掌하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자기를 격려했다. 그때 하늘에서 부르는데, “郁面娘은 堂에 들어가 念佛하라.” 하였다. 절의 중들이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堂에 들어가 전처럼 精進하게 하였다.<sup>27)</sup>

貴珍은 염불하는 郁面을 미워했다. 貴珍이 郁面을 미워한 이유는 郁面에 대한 시기 또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차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에 따른 差別意識은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 매우 거리가 멀다. 육조 惠能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고,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같지 않으나 부처의 성품에 차별이 있겠습니까?”<sup>28)</sup> 라고 하였다. 이는 “천한 신분도 깨달음을 구하면 구도에 성공할 수 있다.”<sup>29)</sup>는 의미이다. 이처럼 佛性은 하나인데 지역과 사람과 신분에 따른 차별은 좋지 않은 생각이며 죄업의 사슬을 만드는 원인이다.

貴珍은 郁面에게 매일 곡식 두 섬을 하룻밤에 다 쥘게 하여 절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郁面은 초저녁에 다 쥘어 놓고 절에 가서 염불하여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郁面이 곡식을 쥘는 일은 주인의 미워함에도 성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참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郁面은 계율을 지키면서 忍辱波羅蜜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世尊은 『

27)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360.

28) 성철, 『돈황본 육조단경』(장경각, 2015), pp.67-68.

29) 박다원, 「삼국유사 구도설화에 나타난 하층민의 구도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태민국학연구원, 2018) 제21집, p.158.

『金剛經』에서 忍辱波羅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여래가 말한 것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것의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 어째서인가?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기었으나, 나는 그때에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으니, 어째서인가?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 사지가 찢어질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성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sup>30)</sup>

世尊은 忍辱仙人이었던 前世에 歌利王에게 몸을 베이고 사지를 마디마디 찢겼지만 성을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四相을 여의고 성을 내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忍辱이다.

한편 주인이 직분에 맞지 않은 郁面의 염불을 미워한 일은 염불하는 郁面을 경멸하고 천시하는 행위이다. 郁面은 주인의 신분 차별 때문에 輕蔑과 賤待를 받았다. 世尊은 『金剛經』에서 경멸과 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경멸과 천대를 당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이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남이 가볍게 여기고 천시하기 때문에 선세 죄업이 곧 소멸하여 반드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sup>31)</sup>

30) 『金剛經』, 第十四「離相寂滅分」. “須菩提 忍辱波羅蜜 如來說非忍辱波羅蜜 何以故 須菩提 如我昔爲歌利王割截身體 我於爾時 無我相 無人相 無衆生相 無壽者相 何以故 我蜜往昔節節支解時 若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應生嗔恨.”

31) 『金剛經』, 第十六「能淨業障分」. “若善男子善女人 受持讀誦此經 若爲人輕賤 是人 先世罪業 應墮惡道 以今世人輕賤故 先世罪業 則爲消滅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위의 설명에서 경멸과 천대가 앞에서는 선세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라 하고, 뒤에서는 선세 죄업을 소멸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를 얻는다고 설하였다. 이러한 설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이 모순에 대해 性徹 스님은 “앞에서 말한 경멸과 천대는 眞如自性を 無明이 경멸하고 천대한 것이며, 뒤에서 말한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는 無明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眞如自성이 드러난 것이다”<sup>32)</sup> 라고 설명하였다. 無明業識을 경멸하고 천대하여 眞如本性이 드러난 것이 菩提이고 깨달음이다.

郁面은 전생에 지사자로서 계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업을 지어서 청정한 마음의 眞如本性이 三毒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설명처럼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無明이 眞如를 덮어서 眞如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佛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심 구도하여 無明을 경멸하고 眞如自성이 드러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貴珍의 꾀박에도 불구하고 郁面은 수행의 의지를 놓지 않으며, 급기야는 염불중에 졸음을 쫓기 위해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을 꿰어 두 말뚝에 매어놓고 합장하여 염불했다. 이는 서원을 이루고자하는 극도의 간절함에서 표출된 행동으로, 六波羅蜜 가운데에서도 精進波羅蜜과 八正道의 하나인 正精進의 수행 모습을 보여준다. 世尊은 正精進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악한 생각이 장차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이다.<sup>33)</sup>

32) 성철,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장경각, 2015), pp.96-97 참조.

33) 일아 편역, 「상윳따 니까야」 45,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민족사, 2018), p.216.

바른 精進은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선한 생각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佛道를 닦는다거나 닦을 것이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뜻을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용맹 무퇴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郁面은 두 손바닥을 뚫어 거기에 노끈을 꿰어 두 말뚝에 매어놓고 흔들림 없이 합장한 자세로 염불하였다. 이처럼 郁面은 진리 또는 깨달음을 향한 발원을 이루기 위한 수행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精進波羅蜜 또는 正精進을 수행한 인물이다. 郁面의 成佛을 ‘개인의 信心이나 노력보다 因, 즉 연기법<sup>34)</sup>으로써 설명하기도 하지만, 郁面의 염불에서 成佛을 향한 信心이나 精進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러한 郁面의 精進은 일언이 讚에서 “손바닥 뚫어 노끈 꿰니 그 몸도 잊었네.”<sup>35)</sup>라고 하였듯이, 고통을 견디면서 몸을 잊을 정도로 염불하여 無我에 이르렀던 것이다.

世尊은 『金剛經』에서 “보살이 恒河[간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여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一切法에 나 없는 줄을 알아 참음을 이루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할 것이다.”<sup>36)</sup> 라고 설하였다. 불교에서 功德은 장차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 쌓는 善行이며, 가장 큰 功德은 佛法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닦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貴珍은 彌陀寺를 짓는데 보시하고 거기서 萬일을 기약하고 염불하였다. 郁面은 주인을 따라가서 고통을 견디고 몸을

34) 이현주,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017) 제106집, p.113.

35)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362.

36) 『金剛經』, 第二十八 「不受不貪分」. “須菩提 若菩薩 以滿恒河沙等世界七寶 持用布施 若復有人 知一切法無我 得成於忍 此菩薩 勝前菩薩 所得功德.”

잇을 정도로 염불하여 無我에 이를 만큼 精進하며 염불하였다. 두 인물의 精進을 비교하면, 貴珍은 我相과 人相에 머물러 郁面の 精進을 시기하여 미워했으나, 郁面은 貴珍의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一切法에 無我를 알고 忍耐를 이루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無明業識에 가려진 眞如本性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종의 신분인 郁面の 공덕이 주인인 貴珍의 공덕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郁面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精進波羅蜜 또는 正精進을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V. 極樂往生の 불교적 담론

##### 1. 假說의 方便

郁面은 주인을 따라가서 손바닥을 뚫어 노끈을 꿰는 고통을 견디고 몸을 잇을 정도로 精進하여 功德을 닦고 西方 極樂世界에 往生하였다.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郁面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교외에 가더니 해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蓮花臺에 앉아서 큰 光明을 발사하면서 서서히 가버리니, 음악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sup>37)</sup>

위의 내용은 郁面이 極樂往生하는 장면이다.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는 阿彌陀佛이 郁面の 往生을 맞이하는 표지이다. ‘해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는 종의 신분인 옥면이 부처가 되었다는 뜻이며, ‘蓮花臺에 앉아서 큰 光明을 발사하면서 서서히 가버리니’는 서쪽의 영원한 광명의 세계인 極樂에 往生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늘

37) 이민수 역, 『三國遺事』 感通篇 「郁面婢念佛西昇」(을유문화사, 1985), pp.360-361.

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는 극락이 즐거움만 있는 세계임을 알도록 하는 표현이다.

사람이 죽어서 부처의 몸으로 변하고 극락으로 간다는 내용은 현실세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彌陀信仰의 근본 경전이 되는 淨土三部經인 『阿彌陀經』 『無量壽經』 그리고 『觀無量壽經』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먼저 極樂世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극락은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있는 한 세계이고, 阿彌陀佛이 설법하는 세계이며,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모든 즐거움만 받는 세계”<sup>38)</sup>이다. 다음으로 極樂世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無量壽佛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信心을 내어 지성으로 極樂世界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往生하고,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다.”<sup>39)</sup>고 설한다. 極樂은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이며, 청정한 마음의 信心으로 염불한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世尊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世尊은 앞에서 말한 極樂世界와 極樂往生의 내용을 부정하는 설명을 하였다.

사리불아 성문과 보살들아, 이 미묘한 법은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 다섯 가지 나쁜 세상[五濁惡世]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欲樂만 좋아하니 이런 중생들은 불도를 구하지 않고 부처님의 일승법 들어도 의혹하고 믿지 않으며 법을 파하고 나쁜 길에 떨어진다. 부끄러움 아는 청정한 사람, 불도에 뜻을 두는 사람, 이런 이를 위하여 일불승을 찬탄하오리.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으레 천만 억 방편으로써 알맞게 말하는 법을 배워 익히지 않은 사람은 이 도리를 모르거니와 너희들은 이미 세상을 지도하는 부처님들 방편으로 하신 일 알고 조급도 의혹 없나니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장차 成佛할 줄 알라.<sup>40)</sup>

38) 청화 역, 『阿彌陀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337 참조.

39) 청화 역, 『無量壽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118.

40) 『묘법연화경』, 「방편품」(현불사, 불기2541년), p.83.

위의 내용에 따르면, 사람이 현세의 즐거움에 집착하여 佛道를 믿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자명한 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 佛道에 뜻을 두는 사람은 부처님이 假說 方便으로 설했음을 알고 의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成佛도 方便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彌陀信仰에서 정토니 서방이니 극락이니 하는 세계는 여기서 십만 억 佛國土를 지나서 있다고 전제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세계이며, 成佛과 極樂往生은 중생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닫는 길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인 수단이다. 이 수단은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기 위한 假說 이고 方便이 된다.

따라서 「郁面婢念佛西昇」은 佛道를 이루겠다고 誓願한 郁面の 極樂往生을 보여줌으로써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믿도록 하기 위한 假說 方便의 설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 假說 方便은 중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佛法을 간절히 닦으면 저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 것이다.

## 2. 方便의 實談

앞에서 世尊은 중생에게 불교의 미묘한 법을 믿도록 하기 위해 方便으로 成佛과 極樂往生을 설한다고 하였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깨달음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불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sup>41)</sup>이라는 性徹 스님의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性徹 스님은 불교 공부에서 “方便인 假說과 眞實한 뜻인 實談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sup>42)</sup>고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世尊이 어찌서 成佛과 極樂往生을 方便으로 설하였으며, 그 方

41) 성철, 『백일법문』 上(장경각, 1990), p.35.

42) 성철, 『백일법문』 上(장경각, 1990), p.32.

便의 眞實한 뜻, 즉 實談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世尊은 成佛과 極樂往生을 方便으로 설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갖은 어려운 일을 행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sup>43)</sup>

오탁의 악한 세상[五濁惡世]은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세계”<sup>44)</sup>를 뜻한다. 世尊은 五濁惡世에서 갖은 어려운 일을 행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좋아하여 佛道를 구하지 않거나 의혹하여 믿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다음, 世尊이 方便으로 설한 미묘한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모든 부처님은 法界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三十二相과 八十隨形好인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지혜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골똘히 하여 저 阿彌陀佛과 그 지혜 공덕인 여래 응공 정변지를 깊이 관조해야 하느니라.<sup>45)</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부처님이 法界를 몸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마음이 부처님을 만들고[是心作佛] 이 마음이 부처님이다[是心是佛]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일반 중생이 이해하

43) 청화 역, 『阿彌陀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p.347.

44) 청화 역, 『阿彌陀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p.347.

45) 청화 역, 『觀無量壽經』, 『淨土三部經』(광륜출판사, 2016), p.276.

기 어려운 미묘한 법이다. 이 미묘한 법은 “부처님은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sup>46)</sup>는 육조 惠能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性徹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 이외에는 모두 바른 믿음이 아니고 샅된 마음.”<sup>47)</sup>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가르침은 阿彌陀佛이 몸 밖에 있지 않고 몸 안에 있으며, 極樂이 마음에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阿彌陀佛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阿彌陀佛을 이루면 그 마음이 곧 阿彌陀佛의 세계이며 極樂世界라는 뜻이다. 極樂世界, 成佛, 極樂往生은 언어로 표현한 方便이고, 일체의 妄念을 버린 마음에서 생긴 지혜로써 阿彌陀佛을 觀照하여 얻는 마음은 언어가 가리키는 미묘한 법이다. 이 미묘한 법이 方便으로 설명한 假說의 眞實한 의미이자 實談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郁面婢念佛西昇」에서 郁面の 수행은 阿彌陀佛을 觀照하며 一心으로 염불하고, 극한 신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절실하게 精進하여 마침내 一切法에 無我를 깨닫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郁面の 成佛은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 無明業識에 가려진 眞如本性을 깨달음으로서 이룩된 것이다. 郁面的 極樂往生은 인물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불교적 신비체험임과 동시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작품의 심층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의미는 결국 마음이 부처를 짓고 그 마음이 부처이며,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와 다름없다는 불교의 미묘한 법이다. 郁面的 수행 이야기를 방편으로 하여 설명되고 있는 極樂往生의 미묘한 법은, 걸림이 없는 진정한 自由이며 고통이 없는 영원한 幸福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極樂往生에 내재한 미묘한 법이며, 미묘한 법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다.

46) 성철 편역, 『돈황본 육조단경』(장경각, 2015), p.143.

47) 성철, 『백일법문』 上(장경각, 1990), p.32.

## V. 결론

이 연구의 대상 작품은 「郁面婢念佛西昇」이며, 내용은 鄉傳과 僧傳과 구분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신라 景德王 時代이고, 공간적 배경은 진주에 있는 彌陀寺이며, 사상적 배경은 불교의 彌陀信仰이다.

景德王 時代를 배경으로 설정한 설화를 보면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나타나고 三山五岳의 神이 왕에게 나타났다고 전하듯이 불안한 조짐을 보였던 사회였다. 정토사상은 僧俗, 남녀, 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阿彌陀佛을 지성으로 염송하고 실천한다면 阿彌陀佛의 구원을 받아 成佛하거나 서방의 極樂往生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경덕왕 당대에 현실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중생들은 이러한 정토사상에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僧傳의 내용은 觀音菩薩의 現身인 八珍의 무리에서 일을 맡은 知事者가 戒를 지키지 않은 죄업으로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로 환생하고, 소는 佛經을 등에 실어 나르던 선업으로 佛經의 힘을 입고 인간세계에 여자 중으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 중의 이름이 郁面이라고 전해준다. 이러한 郁面の 운회는 惡因惡果와 善因善果에 의한 因果應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鄉傳의 내용은 郁面이 주인의 천대와 멸시를 견디며 몸을 잊고 염불하면서 佛道를 닦아 極樂往生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極樂往生은 어리석은 중생에게 깨달음을 교화하기 위해 부득이 설한 方便的 假說이다. 이 假說의 實談은 마음이 부처를 지으며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談論이다. 이 談論의 불교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유한한 세계에서 추구하는 일시적 행복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무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세계는 언제나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즐거

움, 나와 너 등으로 분별하여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여 투쟁하는 세상이다. 이러한 투쟁의 현실에서 더더욱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진정한 자유를 이루려면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즐거움, 나와 너, 이렇게 구분한 둘이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너가 서로 소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나와 너를 구분하는妄念을 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忍耐하며 일체의 법에 無我를 깨달아야 한다. 郁面이 忍辱과 無我로써 진정한 自由와 영원한 幸福을 이룬 이야기인 「郁面婢念佛西昇」은, 분별과 대립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던지는 울림이 매우 클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金剛般若波羅密經』, 『三國遺事』, 『阿彌陀經』,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광복, 2007).
- 구자상, 「삼국유사 소재 여성주체설화의 수록배경논구」, 『동아시아불교문화』(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09) 제31집.
- 김기중, 「한국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동악어문학』(동악어문학회, 2016.05) 제67집.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리의 불교사상적 연구」, 『한국문학논총』(한국문학회, 2005.12) 제41집.
- 김성주 외 공저, 『금강경언해』(신구문화사, 2006).
- 김승호, 「삼국유사에 보이는 시간관과 과거구성」, 『동아시아고대학』(동아시아고대학회, 2012.12) 제29집.
- 김영미, 「고려말 여신 성불론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한국사상사학회, 2012.08) 제41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엮음, 『불교 교리』(조계종출판사, 2001).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엮음, 『불교의 이해와 실행』(조계종출판사, 2004).

- 현불사, 『묘법연화경』, 「방편품」(현불사 발행, 1997).
- 무비스님, 『금강경강의』, (불광출판사, 2001).
- 박다원, 「삼국유사 구도설화에 나타난 하층민의 구도양상과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택민국학연구원, 2018.06) 제21집.
- 박서연,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신라중대를 중심으로-」, 『불교학보』(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07) 제68집.
- 성철, 『돈황본 육조단경』(장경각, 2015).
- 성철,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장경각, 2015).
- 성철, 『백일법문』 上 下.(장경각, 1990).
- 송효섭, 『삼국유사설화와 기호학』(일조각, 1990).
- 신은경, 「삼국유사 소재 육면비염불서승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여성문학연구』(한국여성문학학회, 2012.06) 제27호.
- 이강엽, 「성과 속의 경계, 삼국유사의 신발 한 짝」, 『고전문학연구』(한국고전문학회, 2013.06) 제43집.
- 이민수 역, 『삼국유사』(을유문화사, 1985).
- 이현주,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017.12) 제106집.
- 일아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민족사, 2018).
- 정환국, 「삼국유사의 인용 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초기서사의 구축형태에 주목하여」, 『동양한문학연구』(동양한문학회, 2006.08) 제23집.
- 청화 역, 『淨土三部經』, (광륜출판사, 2016).

## Abstract

*An Analysis of Cultural Discourses of Wukmyenbiyembwulsung / Kim Byeong-keon*

The Samguk Yusa includes Buddhist folk tales that were delivered by word of mouth in the Silla era. These folk tales are important data for analyzing how Buddhism's popularization and cultural imagination were related to the Silla people'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Wukmyenbiyembwulsung(one of the folk tales in Samguk Yusa), which was created on ground of Buddhism's Mita faith. The protagonist is a female servant named Wukmyen. In her past life, she was a cow in Buseoksa which carried Buddhist texts. Thanks to carrying Buddhist texts, she was reborn as a servant In the human world. By enduring her master's contempt and practicing Buddha-chanting, Wukmyen was able to reach the Buddha Land.

From a Buddhist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meanings of cultural discourses of Wukmyenbiyembwulsung, focusing on the process of reincarnation (birth, death and rebirth) and the Silla people's aspiration to go to the Buddha Land. Wukmyen's story is a hypothetical one that was mainly used to enlighten the people about reincarnation and the Buddha Land. It also reflects the Buddhist doctrine that true freedom and eternal happiness can be achieved by realizing the purity of one's self, enduring contempt, and practicing selflessness.

The real world consists of conflict between the other and the self across time and space. To have freedom and happiness in the world, one should endure contempt and practice selflessness. Thus, the meanings of cultural discourses of Wukmyenbiyembwulsung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contemporary world.

Key words: Wukmyen(郁面), Samguk Yusa(三國遺事), Enduring Contempt, Selflessness, Buddha-chanting, Reaching the Buddha Land, Buddhism's popularization.